

2025 KAFSA · KADIA 동계총회 및 컨퍼런스, 강릉에서 성료



2025 KAFSA·KADIA 동계총회 및 컨퍼런스가 12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강릉 스카й베이 호텔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개최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동계총회에는 전국 대학 외국인 유학생 행정 및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해, 외국인 유학생 정책과 대학 현장의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외국인 유학생 정책 및 행정 현안 공유… 첫날 일정 진행

첫날에는 임원회의와 개회 일정을 시작으로 외국인 유학생 행정 및 국제화 정책 전반을 다루는 발표가 이어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정은 팀장, 강원대학교 이유진 교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손영빈 선임연구원, 법무부 주도현 사무관의 발표를 통해 국제화지원 팀 사업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 외국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우수 사례, KIAT 한미 장학사업,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 및 실무 현안이 공유됐다.



고등교육 국제화와 인재 유치 전략 논의… 둘째 날 주요 세션

둘째 날에는 고등교육 국제화 환경 변화와 외국인 인재 유치·관리 전략을 주제로 한 세션이 진행됐다.

성균관대학교 고장완 교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오승윤 교수, 하이얼다이버시티 문준철 이사의 발표를 통해 고등교육자격 인정에 대한 글로벌 협약, 외국인 과학기술인재 지원, 외국인 유학생 통합 관리와 하이얼다이버시티의 사업 소개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아울러 엑셈 고평석 대표는 ‘Breakneck Speed 시대의 AI, 10가지 궁금증과 그 답’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해, AI 기술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다.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특강은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얻었다.

유학생 정책 및 관련 기관 주요 사업 소개… 마지막 일정 마무리

이어서 정부 정책과 실무 지원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발표가 이어졌다.

교육부 이시우 사무관, Flywire 최은지 매니저, 국립국제교육원(NIIED) 김을고등교육국제화 부장, ETS Korea 박상후 부장의 발표를 통해 교육부 유학생 정책 및 4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국립국제교육원(NIIED) 사업 안내, 유학생 등록금 수납 시스템, TOEFL 평가 체계 변화 등 유학생 행정과 직결된 주요 내용이 공유됐다.

한편, 이번 동계총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KAFSA·KADIA 회장교로서 주관한 마지막 공식 행사로, 2025년도 협의회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2026년부터는 경기대학교가 회장교로서 협의회를 이끌 예정이다.